

## 동북권

### •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3.1% 증가

- 전년동월대비 +13.1% = 소매업의 기여도 +1.6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11.5%p
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
※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

### 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2.3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37.7% 상승

- 동북권은 의복·섬유·신발(7월 18.7% ⇨ 8월 25.9%), 문화·오락·여가(7월 0.1% ⇨ 8월 8.8%), 기타상품(7월 3.2% ⇨ 8월 8.1%), 무점포소매(7월 4.6% ⇨ 8월 7.8%) 등의 증가폭이 확대하고 가전제품·정보통신(7월 -24.5% ⇨ 8월 -8.5%), 기타가정용품(7월 -12.1% ⇨ 8월 -8.4%), 종합소매(7월 -4.6% ⇨ 8월 -1.0%) 등 세부 업종의 하락폭이 축소하며, 연료(7월 -19.6% ⇨ 8월 -26.7%)의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증가세 전환.

· 8월 동북권 소매업은 의복·섬유·신발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상품, 무점포소매,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
· 반면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연료, 기타가정용품,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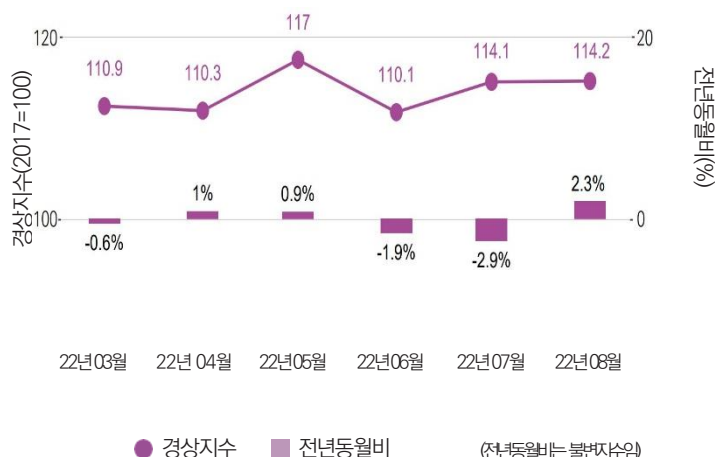
- 동북권도 음식점 (7월 31.9% ⇨ 8월 29.9%)의 상승폭이 소폭 감소하면서 주점·커피전문점(72.6%), 숙박(22.5%)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였음에도 숙박·음식점업 오름폭은 (전월보다) 소폭 감소

· 8월 동남권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, 숙박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.

### 동북권 소비경기지수



###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### 동북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